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을 삼달1리 삼달1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 김갑순(여, 1939년생, 성산을 삼달1리)

- 줄거리: 도깨비에게 음식을 올리지 않고 일을 나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집이 불타고 있었다고 한다.

[제보자] 도체비 귀신나시 뭐 올리지 안혀 동 밧디만 가 부난, 바쁘난 밧디 강 생각해 보
 난, 그 신 모신 신나시 안네지 안혀 동 갖거든.

경허난 어떠봐불언 그 할머니가 돌아오란 보난 벌써 불이 와랑와랑 부땃젠. 그런
 말은 우리도 들었수다.

- 핵심어 : 도체비, 귀신, 밧, 불, 제물, 양값음, 도깨비